

## 질적 연구를 통한 삶의 맥락적 관점에서의 노인의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용 태도 및 적응에 대한 이해

황지윤<sup>1)</sup> · 김보경<sup>2)</sup> · 김기랑<sup>3)†</sup>

<sup>1)</sup>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sup>2)</sup>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sup>3)</sup>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A Qualitative Study on Attitude, Acceptability, and Adaptation for Home-delivered Meal Services in the Korean Elderly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Context

Ji-Yun Hwang<sup>1)</sup>, Bokyoung Kim<sup>2)</sup>, Kirang Kim<sup>3)†</sup>

<sup>1)</sup>Nutritio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sup>2)</sup>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sup>3)</sup>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 †Corresponding author

Kirang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College of Natural Science, Dankook University  
119, Dandae-ro, Dongnam-gu, Cheonan, Chungnam 330-714, Korea

Tel: (041) 550-3472  
Fax: (041) 559-7857  
E-mail:  
kirangkim@dankook.ac.kr

####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No. 2013R1A1A1060704).

Received: April 28, 2014  
Revised: September 23, 2014  
Accepted: October 20, 2014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home-delivered meal services for the elderly, to identify reasons for recipients to get started with the services and to evaluate the attitude, acceptability and adaptation of recipients to the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context.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een low-income elderly recipients of home-delivered meals and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Results:** The results were deduced as four themes which comprised of long-term vulnerable socioeconomic contexts resulted in entry to the services, conflicting acceptability to the services, passive adaptation to taking the services, and positive practices to cope with supplement free meals or other services. The service participation was initiated because of a combination of prolonged, vulnerable socioeconomic contexts, including poverty and unexpected life events such as diseases, disability, living alone, aging and unemployment. With regard to taking the services, conflicting acceptability was observed: positive aspects including saving living cost and good quality of meals, and negative aspects including lack of a tailored service and feeling of stigma. Although the recipients needed an individualized service, they did not express their needs and demands for the services and they accepted the unavailability as an accustomed, prolonged vulnerable socioeconomic context. With regard to lack of tailored services, either self-solution such as modification of eating patterns or community-based network and services were used.

**Conclusions:** We suggest that a system to concretely identify recipients' attitude, acceptability and adaptation for home-delivered meal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in the establishment of a tailored nutrition support system for the low-income elderly.

*Korean J Community Nutr* 19(5): 459~467, 2014

**KEY WORDS** the low-income elderly, qualitative method, home-delivered meal services, service acceptability

## 서 론

한국의 노인인구(65세 이상)는 2010년에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38.2%로 추계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전망으로 알려져 있다(Statistics Korea 2010).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는 고령화, 핵가족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인해 보호 및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위가구 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측정되는 상대 빈곤 기준에 의하면 한국 노인의 45%가 빈곤 상태이고 이를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OECD 평균인 13.3%를 훨씬 웃도는 수치(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9)로서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예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빈곤 노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고령, 만성질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식품 미보장(food insecurity)을 비롯하여 양적 및 질적 식사의 어려움, 이로 인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rgetts 등 2003; Kim & Frongillo 2007; Kim 등 2008),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여러 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2008; Teshima & Hirakawa 2010; Administration on Aging 2014). 국내에서도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영양지원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 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근거하여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지원 서비스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밀반찬 및 도시락 배달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빈곤 노인에서의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은 단지 영양 개선의 효과뿐만 아니라 질병 위험의 감소(Splett & Weddle 1999; Millen 등 2002),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의 감소(Rodriguez 등 2001; Kim & Frongillo 2007),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Millen 등 2002) 등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의 이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사용의 감소 효과(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2)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자료 결과에 의하면, 식사 배달 서비스를 받은 노인 가구 중에서 여전히 식품 부족 또는 배고픔을 반영하는 식품 미보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33%로 이들 집단에 대한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09). 최근 가정배달 노인급식 수혜노인

을 대상으로 배달 도시락의 취급과 섭취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공된 식사량이 부족하였고 식사의 보관 방법이나 위생 관리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Park 등 2010).

노인 무료급식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운영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혜 대상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용 태도와 적응이 중요하다. 수용 태도라 함은 서비스를 받는 상황에 대한 개인적 반응(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경험에 의해 체계화된 심적, 행동적 상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용 태도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한 적응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그간에 살아온 삶의 환경과 맥락이 서비스에 대한 수용 태도 및 적응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에서는 최근의 질적 연구에서도 출된 대상자들의 배달 도시락에 대한 의미에 관련된 연구(Seo 등 2013) 외에는 주로 서비스 운영 현황이나 대상자들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 서비스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맥락에서 영양지원 사업에 참여한 동기와 과정,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들의 수용 태도 및 적응 등에 관한 질적 진단을 근거로 맞춤형 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서울시 2개 구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선정된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었다. 개인 심층 면접을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미리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면접 방법, 질문 내용, 면접 시간 등을 설명하고 이 중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에 의한 자료 수집은 Glaser & Strauss(1967)가 제시한 이론적 포화를 근거로 더 이상 내용의 주제를 발전시킬 관련요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포화 시점에서 완료되었다. 최종적으로 조사 대상자는 개인 심층 면접 16명이었다. 대상자들의 연령 분포는 63세-95세로 남자 7명, 여자 9명이었다. 도시락배달 서비스 수혜자는 9명, 밀반찬 배달 서비스 수혜자는 7명이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9명이었고, 대부분이 독거노인이었다(Table 1).

### 2. 조사 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한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Men (n = 7)	Women (n = 9)
Age	76.4 <sup>1)</sup>	82.4
Having health problems	5 ( 71.4) <sup>2)</sup>	6 (66.7)
Living alone	7 (100.0)	8 (88.9)
Type of home-delivered meal		
Delivery of lunch-box	5 ( 71.4)	4 (44.4)
Delivery of side dishes	2 ( 28.6)	5 (55.6)
Economic status		
Recipi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4 ( 57.1)	5 (55.6)
Low-income	3 ( 42.9)	4 (44.4)

1) Mean

2) N (%)

수행되었다(HYI-11-027-1). 조사는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1월에 이루어졌으며 개인 심층 면접은 각 복지관에서 배달을 하는 요일과 시간에 맞추어서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면접을 시행하였다. 면접 시간은 각 대상자에 따라 4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이 끝나면 녹음된 자료를 통해 면접 내용을 정리하고 대상자로부터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2차 면접을 진행하였다. 개인 심층 면접은 16명을 대상으로 18차례 시행되었다.

면접 내용은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일상생활 관련 질문, 식생활 관련 질문, 식품영양지원 서비스 참여 실태, 식품 미보장 관련,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Table 2). 삶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일상생활 관련 질문들은 대상자의 평소 생활과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에 관한 것으로서 어떠한 일상적인 생활 조건 하에서 식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식생활 관련 질문들은 하루의 식사 현황, 음식의 선호도 등 평소의 식생활에 관한 항목으로 포함하였고, 식품영양지원 서비스 참여 실태에 관한 질문들은 대상자들이 식품 지원 사업에 참여

하게 된 계기, 참여 기간, 다른 지원 현황 여부, 만족도, 개선점, 지원 사업에 대한 본인 및 주위의 인식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항목들이었으며 식품 미보장 관련 질문 항목들은 필요하거나 섭취의 욕구가 있음에도 음식에 접근 가능하지 못한 상황과 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 가구 내 식품 현황 및 필요하거나 선호하는 음식을 접하지 못한 경험 등 음식에 대한 요구도 항목을 포함하였다.

### 3. 분석 방법

각 면접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면접 내용을 녹음하여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녹음된 내용을 필사한 후 녹음 자료는 파괴하였다. 필사한 원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적 분석의 특성에 따라 코딩을 하고 범주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자료에서 직설적, 해석적, 반향적 관독 방식을 통해 의미를 추출한 후, 이를 속성과 차원을 고려하여 범주화한다(Kim 2010). 이 연구에서는 Strauss & Corbin이 제시한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자료를 부호화, 범주화하였다(Shin 2001). 녹음 내용을 적어놓은 녹취록과 현장노트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단어, 문장을 구분하였다. 구분된 문장의 해석 내용을 기록하면서 낮은 차원의 추상화를 통해 개념화하였다(소분류). 생성된 개념들을 목록화 하여 연구 주제 속에서의 의미로서 다른 개념들과 비교해가며 유사한 개념은 묶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범주화하였다(중분류). 이들을 서로 비교, 대조 등을 통해 다시 높은 차원의 추상화를 하여 범주화하였다(대분류). 연구의 일관성과 자료 분석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진은 필사된 내용을 각각 따로 코딩화한 다음 각자의 해석을 함께 검토하여 분석 과정을 재차 확인하면서 범주를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진 동료 연구자에게 분석 과정 및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는 동료검토(peer examination)를 거쳤다.

**Table 2.** The in-depth interview questions

Categories	Contents
Daily living	Daily life and health status
Dietary life	Dietary life and food preferences Food insecurity
Participating in the services	Life context and history of initiating home-delivered meal services Satisfaction/un-satisfaction of the services Any change of life including diet and health status after taking the services
Food insecurity	Current dietary status and types of food consumption Experiences of lack of basic food or food you want
Others	Need of any further services

## 결 과

무료급식서비스 수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용 태도 및 적응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8개의 범주와 4개의 주제군으로 도출되었다.

### 1. 축적된 열악한 생활 중 사건을 계기로 무료급식서비스로의 편입

#### 1) 장기간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수준

서비스 수혜 대상자들이 무료급식서비스를 받게 되는 과정은 주로 동사무소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자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되어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는 표면적인 양상이었고, 실제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된 근본적인 계기는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오래도록 누적된 열악한 삶의 사회맥락적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혼자 그래 노동일도 하고 저 닥치는 대로 하고 살았지.. [중략] 그랜 뭐... 안 되가지구선, 나한테 부르고 뭐 하면 그럴대로 지내니깐, 그냥 ...는 뭐 저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 먹고,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그러니깐...”

“그때는 내가 꼬끔 젊어서는 바느질을 했었어요. 혼자 산 거는... 삼십대 초반부터... 그랬는데 인제.. 그리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해가지구 내가 일을 못해요.”

### 2) 예기치 못한 삶의 사건에 의한 서비스로의 편입

즉,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장기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을 버티다가 질환 및 장애, 독거, 노령으로 인한 고용차별 등과 같이 삶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편입되면서 동사무소나 복지관의 급식서비스 대상자로 포함되었다.

“그 노동일 하면... 이 수술하고 나선 내가... 품짱을 못하니깐 뭐 노동일을 해 볼 해. 그니깐..... 어렵지. 그니 지금 국가에서 지원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구, 2년 동안을 내가 이 저기 저... 다듬는 거 그거 봉사를 했거든요. 저 박스는 내가 갖다가 팔고, 저서 나오는 거 박스는 갖다 팔고, 그래가지구서 ... [중략] 아들 하나 있는데, 00회사에 당겼는데, 거기서 어... 저저... 장애, ... 저, 저.. 몸이 좋은가 안좋은가 그거를 병원에 가서 떼어오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떼어다 주니까, 간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저기... 좀 못하게 되고 나오게 됐어요. 거기서 받아주질 않아서 회사에서. [중략] 아무것도 못하게 돼있죠. 그래서 병은 점점 더 허고, 그래가지구서, 너무 곤란해가지구서 그냥, 쫓, ..... 죽었어요. 그 병으로 그냥 죽고, 그러구 나는 그냥 여기서 인제, 동회에서 봐주는 거죠”

“00은행이 폐지되면서, \$\$은행에서 들어오면서, 먼저 있던 사람 육십대 이상은 다 잘라버렸어. [중략] 서류대로 하니깐 나이가 그러니까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나와버

**Table 3.** Attitude and acceptability of the free meal services among the low-income elderly

Theme	Sub-theme	concept
Vulnerable socioeconomic contexts resulted in entry to free meal services	• Long-term belonging to low socioeconomic status	· Poverty · Food insecurity
	• Unexpected life event	· Diseases · Disability · Living alone · Ageing
Conflicting acceptability to the services	• Positive aspects	· Saving living cost · Good quality of meal · Helping a good health
	• Negative aspects	· Lost self-esteem · Having meals alone · Feeling discriminated against
Passive acceptance of taking the services	• Resisting demands of the services • Adaptation of current situations related to the lack of food	· No expressions of demands · Accept the current situations · Try not to think about the current situation
Positive practices to cope with supplement free meals	• Changing diet habits for managing diseases and supplement of free meals • Using community networks	· Reuse the free meal · Trying healthy diet behaviors · Supported human resources and food from community organization

려서 인자, [중략] 내가 동사무실에 가봤는데 [중략] 뭐를 오만한 것을 주더라고. 또 가서 뭐를 써오라고 그러더라고.”

“허리, 다리. 그럼 그게 몇 년 전에 그렇게... 하여간 그...때 까장은 이렇게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디... 아프니까 일을 못하니깐 수술했지... [중략] 도시락을 해주라 어떻게 나 보구 결정하라고 해서 그냥 도시락을 해달라고 해서.”

## 2. 서비스 편입 후 공존하는 상반된 수용 태도

### 1) 긍정적 측면: 생계비 절감 및 식사의 질 향상

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무료급식서비스를 통해 일정 부분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고, 식사비를 절감하게 됨으로써 생계비 절약에 큰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 많이 지금.. 내가 사실 그 반찬 도시락 반찬 일일이 사 먹으려고 해봐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이 도시락 가져오는 거 이래보도 돈 많이 들어가는거예요.. [중략] 그전에 이제 도시락 가져오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반찬값이 한 십 만원이 들어간다면 여기서 도시락 가져오면 한 오만원만 보태면 되거든 많이 보탬이 되지.”

식사의 질의 측면에서 식단의 다양성과 음식의 맛에 만족하고 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 가지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날마다 바뀌어서 해주니까... 그제 그래도 다 들어가면은 영양이 되는 거지...”

“노인들이고 젊은이고 하여간 몸이 건강하도록 반찬이만 들어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입에 맞게끔 한다는 것보다도 요것저것 건강식품으로 해서 주는데...”

“어떤 때는 고기 돈까스도 나오고, 콩나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골고루 나오네요”

### 2) 부정적 측면: 맞춤형 서비스 부재와 낙인감

대상자들은 음식의 양이 부족하고 당뇨나 알레르기 질환으로 식단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맞춤형 서비스 부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반찬이)괜찮은 편인데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니까 조금 거기에 신경을 썼으면.. 어머니가 고기 반찬 그런거는 안 좋으니까.. 거기에만 조금 신경써주시면 그 이상 더 바랄게 없지요. 어머니가 당뇨가 심하니까 될 수 있으면 달고 그런 거는 안 좋고 어 그런 것은 그것도 비위도 안 맞고 그래요.”

“생선 나오면 난 못 먹어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내가 비린 거, 생선 같은 거 그런 거 못먹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그런거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버리지 버려야지 뭐 어떡해 음식이라는 게 버릴 수 없는거고 봉사하는 아주머니 갖다 드시라고 내가 못 먹으니까 갖다 자시라고 뭐 버리는 거보단 낫잖아”

또한 식사 배달을 받는 과정에서의 자존감 상실, 따뜻한 식사 제공이 되지 못한 점, 혼자 먹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으며, 공짜로 먹는 밥에 대해 주위로부터 차별적인 시선과 부끄러운 감정 등의 낙인감을 느끼고 있었다.

“(혼자서 하는 식사)맛이 없지. 맛도 없고 반찬도 다 해서 새로 식구들끼리 이렇게 먹어야 하는데, 한번 해놓으면 그걸로 며칠씩 끌고 가니까.. 밥도 새로 따끈따끈히 해서 먹어야 한다, 찬밥 탕혀서 조금 먹으니까 늙은이 혼자 먹으니까는...”

“(말벗을)원하는데 -- 근데 청년들이 가져와도 그렇게 얘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물어도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언제 갖다주는지도 몰라요. 갖다 놓고 간 줄도 모른다고. 그냥 갖다놓고 대문도 확 그냥 열어놓고 가버리고 밥 갖다 놓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진저리가 나서 그런가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거지 뭐. 젊은 사람이 노인네하고 얘기하고 싶겠어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야지 뭐. 옛날에 부녀회 여자들이 와서 갖다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가져오면 좋아요 와서 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언제 갖다 줬는지도 몰라.”

“아유 쟁피하죠 얼마나 쟁피해요 아유 쟁피하고 부끄럽지요. 아들이 있어서 도시락 그냥 먹어요 누굴 보고 나를 보고 우리 언니라 그러면 쟁피하고 부끄러워서 언니라고 부르지만 형제가 다 그냥 먹고 사나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집 외에는 내가 신경을 안 쓰니까. 그리고 이렇게 받아도 여기 주위 사정상 이야기하지도 않고”

## 3. 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적용

### 1) 요구도 표출의 억누름

대상자들은 건강을 위한 식사와 추가적인 식품을 섭취하기를 원하였고 관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음식을 공짜로 받는 입장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표출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요구 표출을 금기시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저 뭐 요것은 좀 적다 맛없다 하면 그 한 사람 보고만 들어 줘니까? 아무 말도 말고 주는대로 먹고 그래야 이쁘다고 하지 그 개똥도 아무것도 못한 것들이 똥-하면 더 밍잡아요. 해준대로 먹고 그러면 좋지.”

“무신 말 할 게 있어요. 우리, 난, 뭐 뭐, 먹고 싶으니 고기 좀 사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말 못해요, 그런 거는. 뭐 따로 못 하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맞출래니까 내가 말하자면 생선도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못 하지.”

“밥도 좀 안 먹고 다른 걸로 좀 먹었으면... [중략] 그거야 뭐 다 먹고 싶지. 안 먹고 싶은 거 없지 뭐. [중략] 밥 말고 좀 다른 것 좀 더 내 몸도 좀 좋은 걸로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지. 왜 늙은이들은 왜 그런 게 없겠어”

“(건강식품에 대해)그래서 생각을 있고, 듣는 거 보는 거는 있는데, 마음대로 못하지. 돈 때문에.”

## 2) 열악한 생활 여건의 연장선으로서의 적응

장기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어있던 이들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부족한 현실 상황을 이전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했다. 이들에게서 이룰 수 없는 현실의 욕구는 오히려 삶의 고통이 되기 때문이었다.

“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내 생활이 이 정도다, 고 한도 내에서 내가 생활을 하지 더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지만 형편이 되어야지요. 생각을 안 하게 되요 생각을 뭐하러 합니까. 생명 나지. 아예 생각을 안 하는거예요”

또한 대상자들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사먹는 것은 매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통제 범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욕구가 생겨날까봐 음식들을 파는 시장이나 가게에도 가지 않으려 하고 그러한 생각조차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시장가면 먹고 싶은 것도 많으니 시장에도 안 가고 가게에도 안 가고.”

## 4. 부재한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자구책과 지역사회 보완기능의 작동

### 1) 개인적 자구책: 먹는 방식의 조절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부족한 무료급식의 식사량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

름의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대응 방식들은 이들의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양을 채우기 위해서 제공된 음식을 국물 음식으로 재 조리하여 여러 번 나누어 먹거나, 질환으로 인하여 평소의 좋지 않던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보였다.

“잘 먹는 사람들은 하루나 딱 맞죠 -- 나는 반찬으로 -- 한끼도 모자라지만 한 가지가 모자라지만 국물 만들어 먹으면 한 이틀 먹고 그러거든요”

“밥을 해놓아야 한디 도시락 하나 갖구서, 한끼 먹을 건디 한 뭐... 삼시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지. 도시락을 해놓구서, 그 도시락을 쏟아놓구서, 집에서 현 밥하고 섞어서 그냥 이렇게...”

“밥이 어중간하고 밥이 요놈 갖고는 한 때가 못 넘어간다 하면 라면 하나에 밥 먹고, 또 반찬 없으면 고놈에다 말아먹고 그렇게 하죠.”

“위가 안 좋으게 [중략] 항시 큰 주전자에 보리차 끓여갖고 먹을 때마다 주전자로 먹을만치 새로 데워서 먹잖아요. 딱 끓여놓고 따습게 먹어야 위에 좋단니까 찬 거 먹으면 위통 나니까. 그렇게 해서 먹죠.”

“고기, 달고 음식이 달고 양이 많아서... [중략] 어머니하고 나하고 당뇨가 심하니까 그걸 먹고 당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죠.. [중략] 최대한 어머니 당 올라가는 반찬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은 야채 위주로 해서 당이 올라가지 않는 종류로만 조금씩 신경써요. . [중략] .어머니 당뇨 때문에 하도 (OO병원)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요. 병원에서든 말씀해주시고”

“저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 자다말고도 그냥 그냥 다리가 뻣뻣해지고 말이야,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냥, 일어나서 한 한 십분동안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도 잘 안 풀리고 그래요. [중략] 아침에 건강식품에 대해서 애길 하는데, 이게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노화방지가 많이 된다고. 이 해바라기 씨하고, (호두를 가리키며) 이 호두, 이 호두거든. 꿀에 해서. 그거 웬만하면은 해떡이라구. 그래 자다말고 일어나서 저기 경동시장에 가서, 사다 해떡었다구.”

### 2) 지역사회 보완 기능: 추가적인 식품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들은 주변의 인맥, 지역사회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식품지원을 얻고 있었다. 대상자들 중 일부는 노인 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의 도움으로 식품 구매나 식사 준비 등을 용이하게

하거나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을 지원 받는 경우도 있었다.

“아침은 내가 밖에 안 나가니까 못 먹으니까 인제 도우미가 와서 10시 반이나 되어서 와서 차려주면 먹고 반찬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내가지고 해주면 해먹고 그러지.”

“나하고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고 내 그 아주머니는 인제.. 전동차 있지 밖에 전동차.. (네 전동차 봤어요..) 그 아주머니가 날 거기다 없어주면 운전만 하면 나가면 되니까 그 아주머니 같이 나가 그 아주머니는 따라만 나가면 되니까 운전해서 시장에 가서 반찬가게에 가서 반찬 가끔 사다놓고 그래요.”

“(김치를)구에서 희망나눔에서 한통 갖고 왔잖아요. [중략] 성당에서. 성당 김치 올해는 줄량이 몰라도 한통 줘요.”

“예배당은 이만큼씩 줘.. 다른 것은 뭐 하루에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데 지난번에 예배당에서 주는 것인데 자기 딱딱하게 나오면 나보고 먹으라고 나한테 주더라고”

“그 구역장이 성당에서 바쁘다... 그렇게 시간 내 갖고서를 꼭 갈 때 오셔유. 오셔서 갖다오고 쌍화차 한잔씩 타다 주고 유자차 인자 유자차 기쁘니까 하면 먹으라 갖다 주고 구역장이 너무 감사하게 수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게 그 뭐야, 봉사원 있으니까, 저기 나갈 일 있으면.. [중략] 봉사하는 사람, 봉사원이 그사람 없으면 나 꼼짝 못해. 그 아주머니, 거 거진 우리집 살림 맡아갖고 어떻게 되는 걸 뭐.. 내가 꼼짝을 못하니까?”

## 고 찰

이 연구에서는 노인 무료급식 서비스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맥락에 따른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한 동기와 과정,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들의 태도 및 적응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 취약계층 노인들의 무료 급식 서비스에 대한 수용 태도와 적응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로는 4개의 주요 범주와 8개의 주제군이 확인되었다. 주요 범주로는 1) 축적된 열악한 생활 중 사건을 계기로 무료급식서비스로의 편입, 2) 서비스 편입 후 공존하는 상반되는 수용 태도, 3) 서비스에 대한 체념적 적응, 4) 부채한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자구책과 지역사회 보완기능의 작동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무료급식서비스 제도에 편입은 오래도록 축적된 열악한 사회맥락적 상황에서

의 특정 사건에 의한 계기를 통해서이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오랜 빈곤을 겪다가 질병, 장애, 독거, 고령(나이 듦) 등 일종의 삶의 결정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제도로 편입된 것을 볼 때, 현재 서비스 수혜 대상 선정의 주요한 기준인 가구 소득 수준만으로는 충분한 대상자 선별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외 여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식품지원서비스 참여에 미치는 결정 인자로 가구소득 이외에 실업, 장애, 질환, 독거, 식품미보장 등이 있었으며 이들 요인들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은 효과적인 서비스 운영에 중요함이 제안되었다(Lee & Frongillo 2001; Burstein 등 2009; Edfors & Westergren 2012).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방 차원의 대상자 선별이 중요하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영양지원서비스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서비스 수혜자 선정 기준을 위해서는 가구 소득 뿐만 아니라 독거 기간, 질병 보유수 및 중증도, 장애의 중증도, 주거 환경, 대상자의 식사 준비 능력,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의 다면적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수혜자들은 도시락 서비스로 인한 식비의 절감에 긍정적인 수용 태도를 보였다. 노인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 가구의 가구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식비였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에서의 무료급식 서비스는 영양공급뿐만 아니라 식비의 절감으로 직접적인 생계비 절약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대상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식품의 접근성 또는 식품 섭취에 많은 제약을 갖고 있었고, 주로 한 가지 찬으로 구성된 식사로 질과 양이 모두 부실하였다. 식사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이들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해짐을 경험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로 인한 식사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갖추어진 식사 한 끼가 이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영속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상자들은 무료급식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수용 태도도 보였는데, 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과정 중에 느끼는 낙인감이었다. 서비스 수혜 대상자들은 따뜻한 밥, 같이 먹는 밥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으며,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는데, 주로 고립되어 있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 수혜자의 경우, 도시락 배달 봉사자와의 관계 형성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시되었다(Park 등 2010; Seo 등 2013). 실제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 증대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대방과

의 상호 작용이 있는 환경 속에서의 식사 섭취는 영양 상태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uda 등 2001; Locher 등 2005; Locher 등 2008). 무료급식서비스로부터의 낙인 문제는 기존 푸드 스탬프 관련 연구들에서 많이 제기되어왔는데, 낙인 문제는 무료급식서비스에 대한 지원 동기를 감소시키는 서비스 참여의 장애 요인(McConnell & Ponza 1999;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0; Bartlett 등 2004)으로 인식되어왔으며 특히 노인에서의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Food Research and Action Center 2008). 또한 이는 사회심리적 건강 문제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무료급식서비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체계도 서비스 수혜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에 중요한 영향 인자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무료급식 서비스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물리적인 요구도를 단순히 반영한 식사 제공 차원을 넘어 사회심리적인 요구도를 반영한 돌봄 배려가 고려된 서비스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들은 개인의 음식에 대한 기호도나 질환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수용 태도를 보였으므로 향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외에서는 돌봄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협동조합의 형태로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거나(Participle 2014) 지역사회 내 주민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돌봄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Workers' collective 2014). 현재 국내에서도 노인복지법에 의해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생활지도, 여가 생활서비스, 안전 확인, 안부 확인 등의 노인돌봄종합 서비스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들 간의 연계를 통한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혜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체념적 적응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음식을 제공받는 것 자체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수용했는데 이는 질병, 고령, 장애, 빈곤 등으로 이미 삶의 제반 기회를 많이 상실한 상태로 자존감이 낮고,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빈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대상자들은 생활 보조에 대한 욕구는 일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생활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거나 욕구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들이 제기되었다(Baek 2006). 그러나 한편으로 수혜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표출 대안으로 부재한 서비스를 채우기 위해 개인적 자구책과 지역사회 보완기능을 이용하였다.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식습관을 변화시키고, 건강정보를 습득하여 활용하거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나름의 전략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자구 노력들도 보였다. 이는 이들이 음식에 대한 선호도나 급식에 대한 요구도가 없는 것은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맞춤형 영양지원 체계를 마련함에 있어서 이들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이들의 선호도와 요구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도시락 배달과 밑반찬 배달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 1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삶의 맥락에 따른 무료급식 서비스 사업의 참여 동기과 과정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대한 수용 태도 및 적응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주요 범주와 8개의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서비스 수혜 대상자들이 도시락배달 서비스에 편입하게 된 이유는 오래도록 축적된 열악한 생활여건 중 어떠한 삶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혜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생활비 절감과 식사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낙인감이나 맞춤형 서비스 부재 등 부정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은 잘 드러내지 못하는 체념적 수용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체념적 수용 태도는 이들이 부족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표출을 억누르게 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전에 지속적으로 겪었던 삶의 축적된 열악한 생활여건의 연장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었다. 수혜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표출 대신 부재한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보였으며, 무료급식서비스 이외에 여러 형태의 지역사회 보완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맞춤형 영양지원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서비스 수혜자들의 다양한 삶의 맥락과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드러나지 못한 요구도의 면밀한 파악과 바람직한 자구노력의 지지, 기존 지역사회 보완서비스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서비스 경험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수용 태도 및 적응 상황을 삶의 맥락적 상황에서 파악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의 맞춤형 급식서비스 모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 References

---

- Administration on Aging (2014): Nutrition Services (OAA Title IIIIC). Available from [http://www.aoa.gov/AoA\\_Programs/HCLTC/Nutrition\\_Services/index.aspx](http://www.aoa.gov/AoA_Programs/HCLTC/Nutrition_Services/index.aspx) [cited January 20, 2014]
- Baek HY (2006).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overty among the poor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Korean J Soc Welf Stud* 31: 5-39
- Bartlett S, Burstein N, Andrews M (2004): Food stamp program access study: eligible nonparticipants. Economic Research Servic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Burstein NR, Patrabansh S, Hamilton WL, Siegel SY (2009):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participation. Food and Nutrition Servic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Department of Health (2008): Commonwealth (HACC) program. Available from <http://health.gov.au/hacc> [cited January 21, 2014]
- Edfors E, Westergren A (2012): Home-living elderly people's views on food and meals. *J Aging Res* 2012: 1-9
- Food Research and Action Center (2008): Access and access barriers to getting food stamps: a review of the literature. Food Research and Action Center, Washington D.C.
- Glaser BG, Strauss AL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Chicago, pp.237-250
- Kim K, Frongillo EA (2007): Participation in food assistance programs modifies the relation of food insecurity with weight and depression in elders. *J Nutr* 137(4): 1005-1010
- Kim K, Kim MK, Shin YJ (2008):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food security. *J Prev Med Public Health* 41(6): 387-396
- Kim K, Kim MK, Shin YJ (2009): Household food insecurity and its characteristics in Korea. *Health Soc Welf Rev* 29(2): 268-292
- Kim DS (2010): Qualitative Researching (translated version). 2nd ed. original written by Mason J. Nanam, Seoul, pp.213-250.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9): International comparison of old-age income and poverty in Korea health welfare. *Issue Focus* 9: 1-8
- Lauren HN (2011). Can food stamps help to reduce Medicare spending on diabetes? *Econ Hum Biol* 9(1): 1-13
- Lee JS, Frongillo EA (2001): Understanding needs is important for assessing the impact of food assistance program participation on nutritional and health status in U.S. elderly persons. *J Nutr* 131(3): 765-773
- Locher JL, Ritchie CS, Robinson CO, Roth DL, West DS, Burgio KL (200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understanding under-eating in homebound older adults: the importance of social factors. *Gerontologist* 48(2): 223-234
- Locher JL, Robinson CO, Roth DL, Ritchie CS, Burgio KL (2005): The effect of the presence of others on caloric intake in homebound older adults.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60(11): 1475-1478
- McConnell S, Ponza M (1999): The reaching the working poor and poor elderly study: what we learned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vailable from <http://www.mathematica-mpr.com/~media/publications/PDFs/reach.pdf> [cited December, 1999]
- Millen BE, Ohls JC, Ponza M, McCool AC (2002): The elderly nutrition program: an effective national framework for preventive nutrition interventions. *J Am Diet Assoc* 102(2): 234-240
- Margetts BM, Thompson RL, Elia M, Jackson AA (2003): Prevalence of risk of undernutrition is associated with poor health status in older people in the UK. *Eur J Clin Nutr* 57(1): 69-74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Survey on the current livelihood status and the welfare need in the elderly 2008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Elderly health and welfare business guide. Available from <http://www.mw.go.kr> [cited January 20, 2014]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Total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2013
- Park JY, Lee KE, Yi NY, Kwak TK (2010): Clients' handling and consumption of home-delivered meals at home and their perceptions on home-delivered meal services for older adults. *Korean J Community Nutr* 15(3): 379-392
- Participle (2014): The circle movement. Available from <http://www.participle.net/projects/view/5/101/> [cited August 16, 2014]
- Rodriguez E, Frongillo EA, Chandra P (2001): Do social programmes contribute to mental well-being? The long-term impact of unemployment on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Int J Epidemiol* 30(1): 163-170
- Splett PL, Weddle DO (1999): The elderly nutrition program: contribution to the health and independence of older adults. National policy and resource center on nutrition and aging, Florida
- Shin GR (2001):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ranslated version). original written by Strauss A and Corbin JM. Hyunmoon, Seoul, pp91-110
- Suda Y, Marske CE, Flaherty JH, Zdrodowski K, Morley JE (2001): Examining the effect of intervention to nutritional problems of the elderly living in an inner city area: a pilot project. *J Nutr Health Aging* 5(2): 118-123
- Statistics Korea (2010): Statistics on the elderly population 2010
- Seo S, Yu E, Kim OY (2013): Qualitative study on home delivery meal services for the elderly. *J Nutr Health* 46(6): 589-596
- Teshima T, Hirakawa A (2010): Shokuiku for the elderly. Cabinet Office, Japan
-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0): Food assistance: options for improving nutrition for older Americans. Available from <http://www.gao.gov/assets/240/230545.pdf> [cited August 17, 2000]
- Workers' collective (2014): Fukushi-club. Available from <http://fukushi-club.net/index.html> [cited August 1, 2014]